

# 코로나19가 브라질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부의 대응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⑤ - 브라질

김경란 (브라질 캠피나스주립대학교(Unicamp) 사회경제와 노동 박사과정)

## ■ 머리말

최근 브라질은 여러모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은 국가가 되었으며, 대통령 탄핵 이슈의 부상으로 정치 상황도 매우 불안정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경제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와 실직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삶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5월 2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남미 지역을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로 지목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브라질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sup>1)</sup> 5월 28일 기준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9만 8,440명, 사망자 수는 2만 8,834명에 이른다.<sup>2)</sup> 얼마 전 미국 워싱턴대학교 보건계량분석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IHME)의 크리스토프 머레이(Christopher Murray) 연구원은 브라질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20년 8월 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2만 5,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상황은 그리 나아질 것 같지 않다.<sup>3)</sup> 브라질은 3월부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

1) G1(2020.5.22), América do Sul se tornou o novo epicentro da Covid-19 e Brasil é o país mais afetado, diz OMS,” <https://g1.globo.com/bemestar/coronavirus/noticia/2020/05/22/america-do-sul-se-tornou-o-novo-epicentro-da-covid-19-diz-oms.ghtml>

2) 브라질 보건부 사이트 참고, [https://covid.saude.gov.br/\(2020.5.30\)](https://covid.saude.gov.br/(2020.5.30))

3) UOL(2020.5.26), “Coronavírus: mortes no Brasil podem superar 125.000 em agosto, diz estudo dos EUA,” <https://noticias.uol.com.br/saude/ultimas-noticias/reuters/2020/05/26/coronavirus->

어 사회적 격리, 약국과 슈퍼마켓 등 필수업종을 제외한 기업 및 상가의 영업중단, 학교 휴업, 마스크 사용 의무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잦은 대립과 갈등으로 코로나19 대처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의료보건의 시스템과 충분하지 못한 진단검사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두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격리 조치로 경제활동도 위축되어 생산과 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취업자 감소와 실업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도 쟁점화돼 브라질은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를 둘러싼 최근 브라질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생계유지 및 고용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 정치 상황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한 행보로 인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정치 컨설팅사 아틀라스(Atlas)에 따르면, 브라질 국민의 58%가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며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한 달 사이에 49%에서 58%로 증가했다.<sup>4)</sup> 2020년 초부터 불거진 대통령 탄핵 청원은 하원에 제출된 요청서만 40건에 육박하며, 5월 21일에는 좌파와 중도좌파 정당이 합세하여 하원에 탄핵 요구서를 제출했다.<sup>5)</sup> 여기에 11개의 노동조합 총연맹과 인권·농민·빈민·원주민 등 각 분야의 400여 개 단체도 가세하여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여 국민의 생명을

mortes-no-brasil-podem-superar-125000-em-agosto-diz-estudo-dos-eua.htm

4) BRASIL247(2020.5.28), "Pesquisa Atlas: 65% desaprovam desempenho de Bolsonaro, 58% rejeitam seu governo e querem impeachment," [https://www.brasil247.com/poder/pesquisa-atlas-65-desaprovam-desempenho-de-bolsonaro-58-rejeitam-seu-governo-e-querem-impeachment?amp=&utm\\_source=onesignal&utm\\_medium=notification&utm\\_campaign=push-notification](https://www.brasil247.com/poder/pesquisa-atlas-65-desaprovam-desempenho-de-bolsonaro-58-rejeitam-seu-governo-e-querem-impeachment?amp=&utm_source=onesignal&utm_medium=notification&utm_campaign=push-notification)

5) 탄핵 요구서를 제출한 주요 정당은 노동당(PT), 사회주의자유당(Psol), 브라질공산당(PCdoB), 통합사회주의노동당(PSTU) 등이다.

위태롭게 한 점과 군부의 정치 개입을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해 연설하는 등 헌법 질서를 위배한 무책임과 독단적 행보이다.<sup>6)</sup>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처럼 탄핵 요구에 몰리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처에서의 무능과 무책임을 꼽을 수 있다. 3월 초부터 브라질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 주를 비롯한 일부 주정부는 학교 수업 중단과 상가의 영업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사회적 격리를 강화하였고, 리우데자네이루 주, 파라 주 등의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부분적인 도시봉쇄(lock down)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가벼운 독감(gripezinha)’으로 치부하고, 줄곧 제한된 사회적 격리 및 경제활동 재개를 주장하면서 주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응에 혼선이 빚어졌으며 3월 이후 대다수 지역의 사회적 격리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참다 못한 연방대법원이 나서서 사회적 격리 조치에 관한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과 주지사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게다가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제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치료에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의 사용을 고집했다. 대통령의 제한적 격리 조치와 클로로퀸 사용에 반대한 루이스 앙히키 만데타(Luiz Henrique Mandetta)와 넬슨 타이시(Nelson Teich) 전 보건부 장관이 한 달 간격으로 사임하였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 분야에 비전문가인 군인 출신 에두아르두 파주엘루(Eduardo Pazuello)를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sup>7)</sup> 최근에는 브라질 부패 수사의 상징인 세르지우 모루(Sérgio Moro)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연방경찰청장 교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사임하는 바람에 정치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브라질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절차의 개시는 하원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호드리구 마이아(Rodrigo Maia) 하원의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때라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어 탄핵 절차의 시작 여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6) BRASIL247(2020.5.21), “Câmara recebe primeiro pedido coletivo de impeachment de Bolsonaro,” [https://www.brasil247.com/poder/camara-recebe-primeiro-pedido-coletivo-de-impeachment-de-bolsonaro?amp=&utm\\_source=onesignal&utm\\_medium=notification&utm\\_campaign=push-notification](https://www.brasil247.com/poder/camara-recebe-primeiro-pedido-coletivo-de-impeachment-de-bolsonaro?amp=&utm_source=onesignal&utm_medium=notification&utm_campaign=push-notification)

7) AgênciaBrasil(2020.5.16), “Secretário executivo assume Ministério da Saúde interinamente,” <https://agenciabrasil.ebc.com.br/saude/noticia/2020-05/secretario-executivo-assume-ministerio-da-saude-interinamente>

## ■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

### 경제상황

브라질 민간 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undação Getulio Vargas: FGV)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2020년 브라질 경제는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sup>8)</sup> 브라질 경제는 2015년 -3.5%, 2016년 -3.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침체에 빠졌다가 2017년 이후 1%대 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브라질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5% 감소했다. 특히 산업(-1.4%)과 서비스(-1.6%) 부문의 하락이 컸고, 농업 부문은 0.6% 증가했다.<sup>9)</sup> 브라질 경제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조치가 지속된 3월 21일부터 4월까지 브라질 41개 산업 및 업종 가운데 39개의 활동이 하락하였으며 숙박 서비스(-90%), 항공운송(-79%), 자동차(-74%) 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다.<sup>10)</sup>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은 5.12~5.89%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sup>11)</sup> 브라질 국립통계원(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IBGE)은 2020년 5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ICPA-15)가 0.59%로 1994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가가 8.51% 폭락하면서 에탄올, 디젤, 가스 등 에너지 부문

8) FGV IBRE(2020.5.18), “Monitor do PIB aponta retração de 1,0% na atividade econômica no 1º trimestre,” <https://portalibre.fgv.br/noticias/monitor-do-pib-aponta-retracao-de-10-na-atividade-economica-no-1o-trimestre>

9) IBGE(2020.5.29), “PIB cai 1,5% no 1º trimestre de 2020,”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agencia-sala-de-imprensa/2013-agencia-de-noticias/releases/27837-pib-cai-1-5-no-1-trimestre-de-2020>

10) UOL(2020.5.5), “Ministério da Economia vê faturamento cair em 39 de 41 setores no Brasil por Covid-19,” <https://economia.uol.com.br/noticias/reuters/2020/05/05/ministerio-da-economia-ve-faturamento-cair-em-39-de-41-setores-no-brasil-por-covid-19.htm>

11) G1(2020.5.25), “Mercado financeiro passa a projetar tombo de 5,89% para o PIB em 2020,” <https://g1.globo.com/economia/noticia/2020/05/25/mercado-financeiro-passa-a-projetar-tombo-de-589percent-para-o-pib-em-2020.ghtml>

물가가 급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sup>12)</sup>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가계소비도 감소했다. 브라질 가정의 53.5%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2,100헤알(한화 약 46만 1,000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은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가구의 78.3%는 필수 제품 및 서비스만 구매하였으며, 빈곤층의 89%는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만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up>13)</sup> 사회적 격리 조치의 지속과 공장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한 각 산업 분야의 생산활동 피해도 상당하다. 브라질의 2020년 3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9.1% 감소했으며,<sup>14)</sup> 특히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4%, 제조업의 22%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3월 이후 65개 자동차 생산공장 모두 조업이 중단되었다. 전국자동차산업협회(Anfavea)는 4월 브라질의 자동차 생산량은 1957년 이래 최악의 수준인 1,847대에 불과했으며 전년동기대비 99.4% 감소했다고 밝혔다.<sup>15)</sup>

## 노동시장상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고용 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자가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 5월 28일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은 1분기 실업률은 12.6%이며 실업자 수는 1,28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분기(12.5%)보다 1.1% 상승했고, 이전 분기(11.2%)와 비교하면 1.4% 높아진 수준이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8,920만 명으로 이전 분기와 비교해 약 490만 명이 줄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구직을 단념한 인구가 500만 명에 달해 이전 분기와 비교해 7% 상승하였다.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7,090만 명으로 2019년 1분기보다 600만 명, 이전 분기보다 520만 명이나 증가해 2012

12) IBGE(2020.5.26), "IPCA-15 stays at -0.59% in May,"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en/agencia-press-room/2185-news-agency/releases-en/27772-ipca-15-stays-at-0-59-in-may>

13) FGV IBRE(2020.5.21), "Pandemia já afeta trabalho de 53,5% das famílias, aponta FGV IBRE," <https://portal.fgv.br/en/node/19697>

14) IBGE(2020.5.5), "Produção industrial cai 9,1% em março de 2020,"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agencia-sala-de-imprensa/2013-agencia-de-noticias/releases/27575-producao-industrial-cai-9-1-em-marco-de-2020>

15) <http://www.anfavea.com.br/imprensa>

년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20년 1분기 민간부문의 공식(정규직) 고용은 3,220만 명으로 이전 분기보다 4.5% 줄었으며, 민간부문 비공식 고용도 1,010만 명으로 이전 분기보다 13.2% 하락했다. 1인 자영업자도 이전 분기보다 4.9% 감소해 2,340만 명을 기록했다.<sup>16)</sup> 브라질 노동·사회보험 특별사무국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5월 초순까지 집계된 실업보험 신청자는 총 284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5월에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76.2% 증가한 54만 3,000명이 신청했으며, 경제와 산업 중심지 상파울루(14만 9,000명)를 비롯해 미나스제라이스(5만 3,000명), 리우데자네이루(4만 2,000명) 등 대도시 지역의 신청률이 높았다.<sup>17)</sup> 노동·사회보험 특별사무국 소속 브루노 비앙코(Bruno Bianco)는 고용악화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실시한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 덕분에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를 그나마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5월 26일 기준으로 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휴가를 사용해서 고용을 유지한 노동자들은 810만 명에 이른다.<sup>18)</sup>

한편 브라질에서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나은 공식(정규직) 부문의 고용도 감소했다. 브라질 경제부가 2020년 5월 27일 발표한 고용·실업 등록(NOVO CAGED)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4월까지 총 110만 개의 공식 일자리가 감소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3월에는 24만 개, 4월에는 8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이는 2010년 이래 최대치다. 4월 공식 부문 신규 취업자는 59만 8,000명에 그쳤으며, 해고된 노동자는 145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 부문은 3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sup>19)</sup>

16) IBGE(2020.5.28), “PNAD Contínua: taxa de desocupação é de 12,6% e taxa de subutilização é de 25,6% no trimestre encerrado e abril de 2020,” <https://agenciadenoticias.ibge.gov.br/agencia-sala-de-imprensa/2013-agencia-de-noticias/releases/27820-pnad-continua-taxa-de-desocupacao-e-de-12-6-e-taxa-de-subutilizacao-e-de-25-6-no-trimestre-encerrado-em-abril-de-2020>

17) Trabalho MINISTÉRIO DA ECONOMIA(2020.5.21), “Solicitações do seguro-desemprego aumentam 9,6% em 2020,” <http://trabalho.gov.br/noticias/7406-solicitacoes-do-seguro-desemprego-aumentam-9-6-em-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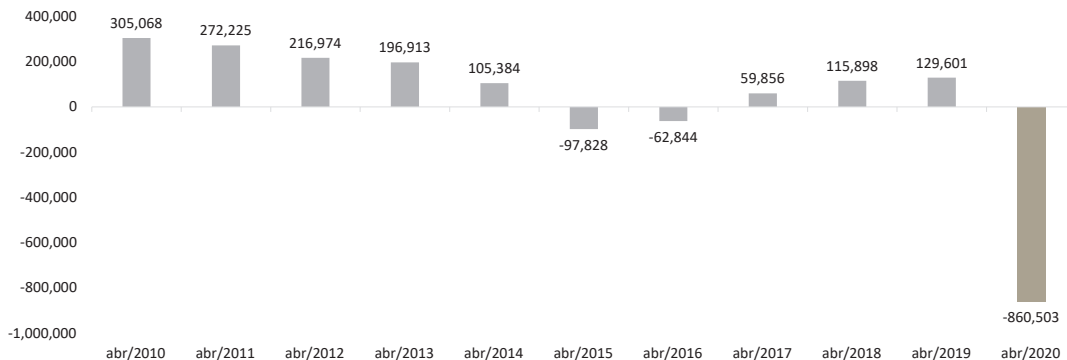
18) G1(2020.5.27), “Com pandemia do coronavírus, Brasil fecha 1,1 milhão de vagas de trabalho entre março e abril,” <https://g1.globo.com/economia/noticia/2020/05/27/coronavirus-brasil-fecha-860-mil-empregos-formais-no-pior-mes-de-abril-em-29-anos.ghtml>

19) 브라질 경제부 사이트(2020.5.27), “Queda nas admissões influencia saldo de empregos formais



[그림 1] 전년동월대비 브라질 공식 고용 변동 추이(2010~2020년, 매년 4월 기준)

(단위 : 일자리 수)



자료 : 브라질 경제부 웹사이트(2020.5.27), [http://trabalho.gov.br/images/Documentos/CAGED/2020/Apresentacao\\_coletiva\\_caged\\_27\\_05.pdf](http://trabalho.gov.br/images/Documentos/CAGED/2020/Apresentacao_coletiva_caged_27_05.pdf)

비공식 노동자, 가사 노동자, 1인 자영자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비공식 부문 고용은 3,460만 명(38.8%)으로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노동 인구의 가장 취약한 부문이 먼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자들은 정부로부터 월 600헤알(한화 약 14만 원)을 3개월 동안 지급받을 뿐이다. 최근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는 비공식 노동자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직종은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주로 가사 노동자(620만 명), 미용 서비스 종사자(200만 4,000명), 의류와 액세서리 종사자(140만 명), 자동차 정비 및 수리 종사자(140만 명) 등이다.<sup>20)</sup> 캠피나스주립대학교(Unicamp) 조제 크레인(José Krein) 교수는 2019년 12월 기준 비공식 노동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550헤알(한화 약 35만 7,000원), 1인 자영업자는 1,700헤알(한화 약 39만 2,000원)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비공식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유지 방안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1)</sup>

do Caged até abril de 2020,” <http://trabalho.gov.br/noticias/7409-queda-nas-admissoes-influencia-saldo-de-empregos-formais-do-caged-ate-abril-de-2020>

20) JORNAL DA USP(2020.4.22), “Pandemia duplica contingente de trabalhadores vulneráveis no Brasil,” <https://jornal.usp.br/ciencias/pandemia-duplica-contingente-de-trabalhadores-vulneraveis-no-brasil/>

21) EPS JV인터뷰(2020.5.20), “Está na hora de organizar a economia para colocá-la a serviço da vida

## ■ 정부의 대책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대책이 본격화된 것은 첫 사망자가 나온 3월 17일 이후이다. 연방정부는 3월 20일 공공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1,696억 헤알(한화 약 39조 원)이 소요되는 산업 및 고용 위기 대응책을 발표했다.<sup>22)</sup> 5월 중순 기준으로 정부가 지출한 총액은 417억 헤알(한화 약 9조 5,000억 원)이며, 취약계층과 비공식 노동자의 생계지원에 123억 헤알(한화 약 2조 8,000억 원)이 쓰였다. 지방정부 재정 지원은 60억 헤알(한화 약 1조 3,000억 원)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소득 유지 지원에 51억 헤알(한화 약 1조 1,000억 원), 기업 세금 감면 및 소규모 영세업자 지원 등에 34억 헤알(한화 약 7,700억 원)이 투입되었다. 경제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부채 규모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0년 말까지 정부 부채 비율은 93.5%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sup>23)</sup>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정부 대책 중 재정 투입 비중이 높고 노동시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계지원과 고용유지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nefício Emergencial para Preservação da Renda e do Emprego, BEm)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들의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로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업은 해고 대신 최대 90일 동안 노동시간 단축 및 비례적 임금 삭감, 최대 60일 동안 일시적 고용계약 중지, 이 외에도 개별

das pessoas, e não da acumulação privada da riqueza',” <http://www.epsjv.fiocruz.br/noticias/entrevista/esta-na-hora-de-organizar-a-economia-para-coloca-la-a-servico-da-vida-das>

22) 브라질 경제부 사이트(2020.3.18), <https://www.gov.br/economia/pt-br/centrais-de-conteudo/publicacoes/boletins/covid-19/timeline/marco/18-de-marco-de-2020>

23) G1(2020.5.22), “Medidas anunciadas de combate ao coronavírus já chegam a R\$ 417 bi, diz governo”, <https://oglobo.globo.com/economia/medidas-anunciadas-de-combate-ao-coronavirus-ja-chegam-r-417-bi-diz-governo-24441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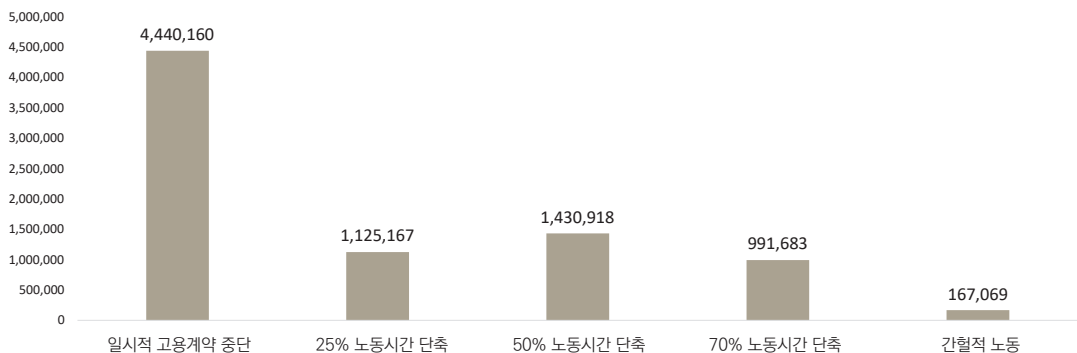


및 집단휴가 사용, 재택근무, 근로시간 저축제 등의 방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면 그에 따른 급여 삭감분은 해당 노동자가 해고 시 받게 되는 실업보험 급여액에 준하여 정부가 지원하며, 1,813헤알(한화 약 41만 8,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이 일시적으로(최대 60일) 고용계약을 중단하면 정부는 기업의 연수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전액 보전해 주거나(실업보험 급여액 기준) 70%를 지원한다.<sup>24)</sup>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은 공식(정규직) 부문 노동자, 파트타임 또는 간헐적 노동자 및 수습생이다.<sup>25)</sup> 5월 27일 브라질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총 810만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의 적용을 받았다. 가장 많이 도입된 조치는 일시적 고용계약 중단(444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25% 노동시간 단축은 112만 명, 50% 노동시간 단축은 143만 명, 70% 노동시간 단축은 99만 1,000명, 간헐적 노동자들은 16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의 시행 현황을 산업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 및 임금의 현행 유지 비율은 상업

[그림 2]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 시행 현황

(단위: 명)



자료 : 브라질 경제부 웹사이트(2020.5.27), [http://trabalho.gov.br/images/Documentos/CAGED/2020/Apresentacao\\_coletiva\\_caged\\_27\\_05.pdf](http://trabalho.gov.br/images/Documentos/CAGED/2020/Apresentacao_coletiva_caged_27_05.pdf)

24) 브라질경제부 사이트(2020.4.6), “Empregadores já podem prestar informações sobre acordos do Programa Emergencial de Manutenção do Emprego e da Renda,” <http://trabalho.gov.br/noticias/7375-empregadores-ja-podem-prestar-informacoes-sobre-acordos-do-programa-emergencial-de-manutencao-do-emprego-e-da-renda-2>

25) 브라질 노동법은 간헐적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를 ‘공식 부문’ 고용 범주에 포함한다.

<표 1> 산업별 고용 및 소득 유지 긴급 프로그램(Bem) 시행 현황

(단위: %)

분류	산업(제조업 일반)	상업	건설업	서비스업
현행 유지	4.8	21.9	9.4	4.6
인력 감소	24.1	36.7	44.4	45.8
노동시간 및 급여 감축	40.5	23.1	27	46.4
일시적 고용계약 정지	27.9	25.5	26.6	42.3
재택근무	80.4	26.6	59.6	68.6
개별휴가	58.5	54.1	56.5	65.0
집단휴가	18.2	9,7	6.7	3.3
근로시간저축제	28.4	19.8	21.2	35.1
기타	8.2	4.7	3.7	4.1

자료 : FGV IBRE(2020.5.21), <https://portal.fgv.br/en/node/19697>

(21.9%), 건설업(9.4%), 제조업 일반(4.8%), 서비스(4.6%) 순으로 높았고, 상업 외 주요 산업 부문에서 노동자 90% 이상이 일자리와 소득의 변동을 겪었다. 제조업 일반은 재택근무와 개별휴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비례적 급여 삭감을 가장 선호하였고, 상업 부문은 개별휴가,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재택근무와 개별휴가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집단휴가를 제외하곤 모든 부문에서 높게 나타났다.

## 취약계층 및 비공식 노동자 긴급지원(Auxílio Emergencial)

취약계층과 비공식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3개월 동안 월 600헤알(한화 약 14만 원), 자녀가 있는 여성 가구주에게는 3개월 동안 월 1,200헤알(한화 약 28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최저임금의 절반인 522.50헤알(한화 약 12만 원)을 넘는 사람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이 최저임금의 3배인 3,135헤알(한화 약 72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지 못한다. 실업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상원은 4월 22일 농민, 트럭 운전자, 재활용 쓰레기 수거 노동자, 매니큐어 종사자, 노점상, 예술가, 어부, 택시 운전자, 플랫폼 노동자, 돌봄 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Lei n<sup>o</sup> 873/2020)을 통과시켰으나, 보우소나루 대통령

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sup>26)</sup>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유일한 600헤알(한화 약 14만 원) 현금 지원 대책은 4월부터 지속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메인 뉴스로 다뤄질 만큼 취약계층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의 기준이 복잡하고 선별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혼선을 거듭했다. 브라질 정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총 1억 1,200만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선별 심사 과정에서 절반 가까이 탈락하여 5,790만 명만이 600헤알(4월분)을 받았다. 아울러 뒤늦게 신청한 1,090만 명은 한 달이 넘도록 심사가 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sup>27)</sup> 이 밖에 긴급지원금 지급 날짜가 정부가 약속한 시기보다 늦어지면서 지급 대상자들의 원성을 샀으며, 디지털 인프라의 부족과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빈곤층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급 방식도 문제가 되었다.<sup>28)</sup> 이 때문에 정부는 2차(5월분) 지원금은 국영은행인 연방저축은행(Caixa Econômica Federal)의 가상계좌를 통해 생년월일 끝자릿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긴급지원금은 애초 3개월로 한정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회는 지원 시기를 연장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각종 세금의 납부를 면제하거나 연기했으며, 국영은행을 통해 기업의 대출을 확대했다.<sup>29)</sup> 또한 140만 개의 영세기업주에게 급여 대출 프로그램

26) FOLHA DE S.PAULO(2020.5.15), “Bolsonaro barra motoristas de aplicativo e outras categorias em vetos à ampliação do auxílio emergencial,” <https://www1.folha.uol.com.br/mercado/2020/05/bolsonaro-barra-motoristas-de-aplicativo-e-outras-categorias-em-vetos-a-ampliacao-do-auxilio-emergencial.shtml>

27) G1(2020.5.29), “Auxílio Emergencial: saques e transferências da 2ª parcela depositada em poupança digital começam a ser liberados neste sábado,” <https://g1.globo.com/economia/noticia/2020/05/29/auxilio-emergencial-saques-e-transferencias-da-2a-parcela-depositada-em-poupanca-digital-comecam-a-ser-liberados-neste-sabado.ghtml>

28)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납세 증명서 CPF(Cadastro de Pessoa Física, 납세자 번호)를 소유하지 않은 빈곤층이 긴급지원금을 직접 인출하기 위해 매일 은행 앞으로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무색해지는 상황이 연일 발생했다.

29) G1(2020.3.24), “Coronavírus: veja as medidas econômicas já anunciadas pelo governo federal e pelo BC,” <https://g1.globo.com/economia/noticia/2020/03/24/coronavirus-veja-as-medidas-economicas-ja-anunciadas-pelo-governo-federal-e-pelo-bc.ghtml>

램을 실시하여 영세기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사회적 격리 조치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은 정부와 국영은행의 공식적인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협회 Sebrae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1,700만 곳의 업체 중 700만 곳(38%)이 긴급 대출을 요청했으나 이 중 14%만이 대출을 받았으며, 절반 이상(58%)은 대출이 거부되었고 28%는 은행으로부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바 및 레스토랑 협회(Abrasel)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소상공인의 80%가 대출을 신청했으나 이 중 81%는 은행으로부터 거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5월 초에 바 및 레스토랑의 20%가 이미 문을 닫았으며 최소 100만 개의 공식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와 은행으로부터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산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해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sup>31)</sup>

## ■ 맺음말

이 글에서는 코로나19가 브라질의 정치, 경제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취약계층 및 노동자들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대응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루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브라질의 공식 실업자는 1,280만 명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별다른 생계 대책이 없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고용 감소와 구직 단념자의 증가 등을 포함하면 일자리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 및 고용 유지 대책은 대부분 2~3개월의 단기 대책이며, 그마저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30) G1(2020.5.19), “Medidas de socorro adotadas pelo governo são insuficientes e não chegam a quem precisa, dizem analistas,” <https://g1.globo.com/economia/noticia/2020/05/19/medidas-de-socorro-adotadas-pelo-governo-sao-insuficientes-e-nao-chegam-a-quem-precisa-dizem-analistas.ghtml>

31) ABRASEL(2020.5.21), “Pesquisa inédita revela riscos crescentes para bares e restaurantes,” <https://abrasel.com.br/noticias/noticias/pesquisa-inedita-revela-riscos-crescentes-para-bares-e-restaurantes/>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의 생계와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KLI**